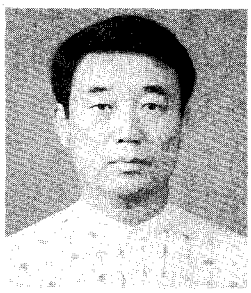
임오년 육계업 결산

표준계약사육서의 정착을 통한 육계산업 안정을 기대하며…



박 원 모
(금지계농장 대표/본회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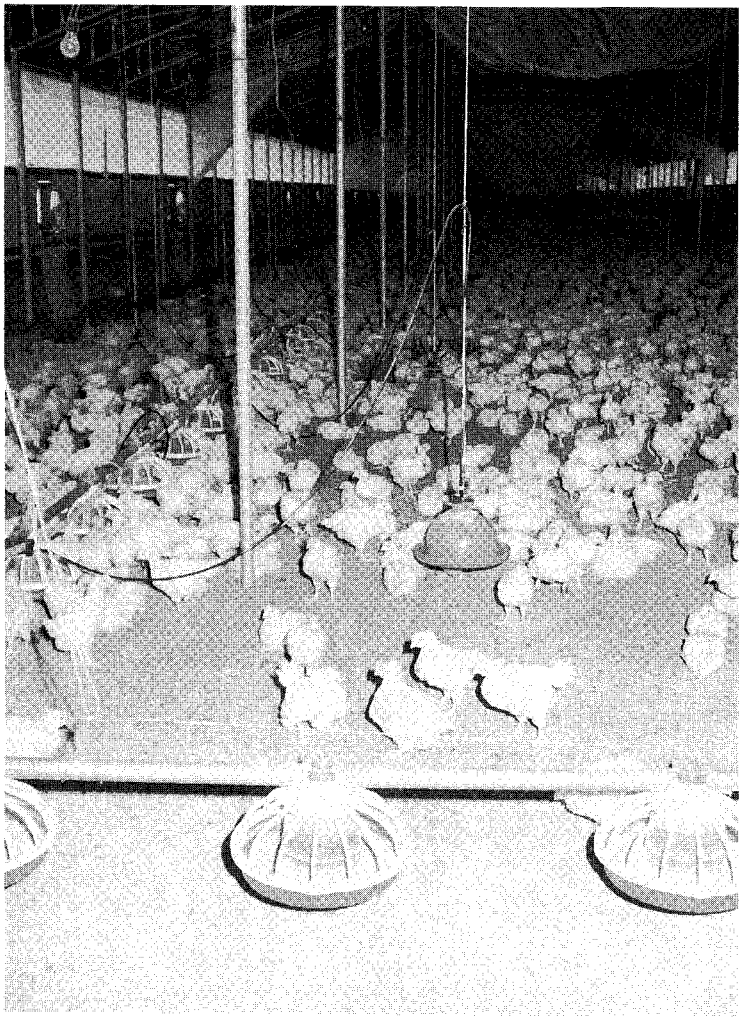
임오년의 육계업 불황이 필자 뿐 아니라 업계 전체에 너무나 차가운 교훈을 남기고, 예년에 비해 날씨마저 빨리 추워지면서 마음마저 움추려들게 하고 있다. 유난히도 시장이 어지럽고 질병 또한 기성을 부렸던 한해였다.

그 동안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시설자동화를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축협 통폐합을 강행하는 정부당국에 사기 당한 기분으로 생업에 종사해왔던 일년이었다. 그 동안 투자하며 진 빚이나마 몇푼 갚아보려고 바둥댔건만 또다시 추가로 빚을 지게 된 일년이기도 하다.

물론 관리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또 통계자료를 검토하면서도 나만 비켜가겠다는 안이한 사고로 과잉생산에 일조한 양계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윌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을 아무 분석없이 특수기대에만 부풀어 무분별한 수입만을 늘려 장기불황을 자초한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아무 대안이나 기반조성 없이 정책을 펴는 농림부 또는 국회에게 원망을 하며 지내온 일년의 결산은 그저 한숨일 뿐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앉아 새해를 맞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필자는 양계업을 사랑하며 그 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들과 함께 새로운 한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해에 양계인들이 힘을 모아 해내야 하고 정부를 비롯한 유관단체들이 관심있게 봐야할 몇가지를 적어본다.

우선 수입을 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양질의 닭고기나 계란을 생산하여 수입 양계산물과 차별화해야 할 것이요. 소비자들에 인정받는 양계산물을 홍보하고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항생제 잔류물질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산물량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육계업자들의 대다수가 계열주체의 위탁업자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육계생산을 조절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고정된 수수료에 의존하는 육계인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과 회전수를 늘려야만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생산량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종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계도태 방법은 무엇인가 잘못 행해지고 있다고 본다. 좀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며 육계생산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된 종계를 우선 도태해야만 지난해와 같은 질병과의 전쟁은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소극적이고 자율적인 검역에 의존하다 보면 닭고기의 수출국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질병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모든 양계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닭고기의 우수성을 수시로 홍보하여 소비물량을 늘려가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홍보비 예산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할 것이며, 작금의 자조금 사업(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입법화와 관련하여 수급조절 사업은 물론 닭고기 홍보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육계 계열화 사업이 국내 전체 생산량의 70%에 도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계열주체와 육계인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육계인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그들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지난

9월에 발표한 육계계열생산 위탁표준계약서가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계약서가 다소 부족할 수 있겠으나 육계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인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신속히 공청회를 거친 후 정부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공용된 계약서로 정착되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을 보면 계열주체에서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회피하고 계약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계약을 맺기 때문에 육계인들이 입는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즉, 계약서의 내용은 오히려 생산자가 불만스러운 점이 많은데도 미리 회피하는 계열업체의 처신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외에 육계업계가 풀어가야 할 문제는 질병문제 등 다양하나 이 모든 것이 생산자, 협회, 정부당국 등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아무튼 다가오는 새해에는 많은 양계인들이 협회회원에 가입하여 우리들의 생업에 관계된 모든 현안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여 힘찬 목소리로 우리들의 권익을 찾고 스스로 양계산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해동안 어려움을 함께 해온 양계인들의 건승을 빌며, 돌아오는 새해에는 서로 단합하여 육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양계인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양계

생석회 ♠ 소석회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충란 및 병원균 살균
♣ 유기질 분해촉진
♣ 산성 토양 개량(pH안정)

영월석회공업사
사무실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번지
전 화 : (033)372-5837, 5618, 팩스 : (033)372-5889
전 화 : (033)372-5296, 6878, 야간 : (033)372-5293